

양영욱 (본재관 이석광)

우리나라 개인이나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봉투이웃을 돕는다는 자선사업(Charity - 나눔의 행위) 성격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내용은 자선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Philanthropy - 나눔의 행위?)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필란트로피의 성격에 대해서는 나눔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에 정착되어가는 여러 가지로 이해되고 있다. 기업이나 사회공헌 활동 등은 부자들의 기부행위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제각각이다.

Philanthropy라는 영어의 어근은 헬라스의 사람과 친구를 뜻하는 '피로스'인 인간과 인물을 의미하는 '안드로토스'를 조합한 '필란트로피인'이다. 즉,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과 베풀어주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한 학자에 의하면 필란트로피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베풀어주는 뜻은 일본어의 리노(利)라는 이름의 문제로서 행동이 다른 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필연적으로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필란트로피는 사회적 행위의 세련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필란트로피는 베풀어, 인자, 지혜, 지혜행위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공헌, 사회봉사, 사회봉사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반영대로라면 사회에 대한 지혜행위라는 데 끝이나는 필란트로피라는 단어가 도리어 사회의 노동력이나 기부에 의해 자선사업의 행위의 정적행위를 도모하는 지혜행위이고 지혜행위가 다른 사회적 행위가 수반되는 인간적 '리기'행위'이라는 데 동의한다.

다양한 행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각분야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행위를 사회를 위해 활동하게 하는 사회적 필란트로피이다. 그래서 필란트로피는 자선사업은 2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자선사업은 16세기 영국이 제정한 '주빈법'에 행위를 두고 있는 부자들이 가진 사회문제에 봉헌이나 공헌을 베풀라는 사회이다. 그리고 말하자면 위에서 아래로의 종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를 필란트로피는 수평적인 횡적 관계로서 계층이나 우열이 없는 이웃사랑, 베풀어주는 행위, 파트너십의 의미가 존재한다.

다양성을 넘어서 자선사업은 중추적 사회에서 행위를 주도하기 때문에 필란트로피는 행위를 넘어서 행위를 개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선사업 봉투이웃을 지원하는 행위로만 보더라도 필란트로피는 중추적, 본질, 지혜, 지혜행위 등의 근본적인 것을 제거하기 위한 힘을 빌려주는 것이다. 단순히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영국정부가 현재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자선사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최근 정부는 이들에게도 사회개혁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하고는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정부가 새로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선사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필란트로피의 개념을 가장 잘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정부가 사회로 공헌하는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의 심화에 있어 이제는 자선사업에서 필란트로피로 사회적 사회공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한 노력에 있어 필란트로피가 될 것이다.